

총장칼럼

한국적 삶과 서당식 혹은 엄숙주의적 교육

김상용 |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김홍도의 그림 중에 '서당'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그림은 당시의 교육방식을 잘 보여준다. 서당 훈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 여러 명이 양쪽으로 나눠 앉았고, 훈장의 과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학생, 혹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다. 아마, 훈장의 꾸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응석받이들의 귀여운 공부장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21세기 교육관이나 가치관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담은 작품이다. 일단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체벌을 하거나 꾸중을 하는 것이 문제다.

요즘, 학교에서는 꾸중하는 교사를 오히려 학생이 공격하는 '역체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1세기의 김홍도가 '서당'을 그린다면 아마 선생님이 울고 있는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겠다.

40대 이상 되는 기성세대의 과거 학생시절에 대한 회고 중에는 폭력이라고 할 정도의 체벌이 있었다는 증언이 많다. 폭력적 체벌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 말이다.



20여 년 전, 자애로운 교사,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편하게 어울리는 교사가 월등히 많았다 하더라도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만들어내는 엄숙주의와 강압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학교라는 제도가 이 땅에 형성된 이래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이었다.

21세기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수업방식이나 학교문화나 교사와 학생간의 긴장 정도는 우리의 전통적 교육방식이나 문화가 아니다. 지극히 서구적인 방식이다.

수천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주거공간, 이동방식, 소통방식 등 그야말로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을 오가는 대부분이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전통 중에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은 굳건히 지켜져 왔지만 우리에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지고, 그 자리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 채워졌다. 교육에서도 우리를 이익이 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부단히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수천년을 이어온 서당식, 혹은 엄숙주의적 우리 전통의 교육방식이 불과 수십 년만에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상이다. 과연 이런 현상이 올바른가. 서구문화를 키워 온 서구의 교육방식을 한국문화에 이입시키는 일이 올바른가 하는 반성을 해보자.

요즘, K-Pop과 드라마·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류 바람이 전세계에 열광적으로 불고 있다. 세계인들의 열광은 바로 한국문화의 독특성에 대한 것이다. 자기들과 다른 삶, 다른 문화에 대한 열광인 것이다. 목소리·음표·전자기타·드럼·키보드 등 음악을 생산하는 요소는 세계 어디나 공통인데 한국의 것은 너무나 독특하기에 세계인들은 그 상상력에 흥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류를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하고, 기획을 한 사람들 즉 한류의 거센 흐름을 실질적으로 창조해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엄숙주의와 서당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의 교육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되는 현재의 학생들이나 그 초기에 있었던 40대 이하의 한국인들이 더 성장하여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적 위치에 올랐을 때, 서구와 유사한 사고와 가치관으로 인해 한류가 더 이상 파도가 아니라 찻잔속에서 말라가는 물 한 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실로 걱정된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것이 더러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 물, 한글, 가족 등이다. 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들과 같은 위상이라고 본다. 즉,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포기할 경우 결국 매우 중요한 것을 잃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당식 혹은 엄숙주의 위주의 교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고 이를 근본으로부터 부정하는 일부 교육계의 움직임을 우려한다. 서당식 혹은 엄숙주의적 교육방식에서도 창의적 인재와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우리의 방식 안에서 창조적인 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권유한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 미국 United States Sports Academy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부산 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연구위원, 평생교육원장, 대학발전기획단장, 2002. 아시아게임 학술위원회 집행위원, 한국초등체육학회 회장,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정책개발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고문, 전국교육대학교 총장 협의회장,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스포츠 철학과 윤리학', '체육원리' 등 다수가 있다.
